

‘우정·협력·초심’...

습근평 주석 뻬루 방문의 세가지 키워드



6월 27일, 중국에서 온 해안 컨테이너 크레인(集装箱起重机)과 레일 크레인(轨道吊运)이 뻬루 찬카이항에 도착하고 있다. 찬카이항은 중국-뻬루 '일대일로' 공동건설 협력 프로젝트이다. / 신화넷

습근평 국가주석이 뻬루 대통령 디나 볼루아르테의 초청으로 13일부터 17일까지 제 31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지도자 비공식회의의 참석차 리마를 찾은 것은 이번이 두번째이다. 습근평 주석의 뻬루 방문은 어떤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있는지 몇가지 키워드를 통해 알아보자.

◇ 첫번째 키워드 : 우정

중국과 뻬루의 우정은 유구한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양국의 우호는 국민 마음속 깊이 자리하고 있다. 올해 뻬루 국회는 만장일치에 가까운 표결로 매년 2월 1일을 '중국-뻬루 우정의 날'로 지정했다. "상호 존중, 평등 대우를 견지하는 것은 중국의 일관된 처세 방식이며 중국-뻬루의 전면적 전략 동반자 관계가 시종일관 높은 수준의 발전을 유지하는 근본적인 이유이다." 습근평 주석은 6월 28일 북경에서

국민방문차 중국을 찾은 볼루아르테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이렇게 강조했다. 이번 방문 기간 습근평 주석은 볼루아르테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양자 관계, 중점 분야 협력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한다. 습근평 주석의 이번 방문이 중국-뻬루의 정치적 상호 신뢰를 한층 더 다지고 각 분야의 실질적인 협력을 심화하며 중국-뻬루의 전면적 전략 동반자 관계가 더 많은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도록 촉진해 양국 국민에 더 많은 혜택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믿는다.

◇ 두번째 키워드 : 협력

습근평 주석이 제안한 '일대일로' 공동건설 창의를 이후 국제사회에서 폭넓은 환영을 받았으며 중남미와 가리브해 여러 국가가 강한 참여 의사를 표명했다. 2019년, 중국-뻬루 양국은 '일대일로' 공동건설 협력 광해비망록을 체결했다. 최근 수년간 양국의 '일대일로' 협

력은 풍성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경제 무역, 금융, 인문 등 분야에서 협력이 더욱 긴밀해졌다. 중국은 10년 연속 뻬루의 최대 무역 파트너이자 최대 수출 시장으로 자리매김했다. 중국 기업이 뻬루에 투자한 라스 밤바스 구리 광산 등 중대 협력 프로젝트는 뻬루의 경제 발전과 민생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발휘했다. 중국-뻬루 양측의 공동 노력으로 찬카이항 프로젝트가 곧 정식 운영에 들어간다. 현지 주민들은 프로젝트 운영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주민들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킬 것이며 뻬루 및 다른 중남미 국가들이 더 많은 좋은 발전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는 기대와 믿음을 갖고 있다.

◇ 세번째 키워드 : 초심

습근평 주석은 이번에 리마에서 열리는 APEC 지도자 비공식회의의 참석으로 아시아태평양의 개방 협력을 촉진하려는 중국의 일관된 초심을 충분히 보여줬다. 세계의 백년 변화 구도가 가속화되

고 있다. "아태지역 지도자로서 우리는 어떠한 아태를 21세기 중반까지 끌고 갈 것인지, 아태 발전의 다음 '황금 30년'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 이 과정에서 어떻게 APEC의 역할을 더 잘 발휘할지를 깊이 고민해야 한다." 2023년 11월, 습근평 주석은 샌프란시스코에서 아태가 직면한 새로운 시대의 질문에 방안을 제시하며 각국이 아태 협력의 초심을 견지하고 책임감 있게 시대의 요구에 응답하며 함께 손잡고 글로벌 도전에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회의 방문해 APEC 지도자 비공식회의에 참석하는 습근평 주석은 중요 연설을 발표해 개혁개방을 심화하는 중요 조치를 소개하고 아태 협력을 추진하는 중국의 정책 주장을 세밀히 예정했다. 각측은 습근평 주석의 이번 회의 참석이 중국 방안을 바탕으로 공동의 관심사에 응답하고 중국 지혜로 아태의 공감대를 모으며 아태 발전의 새로운 '황금 30년'에 더 많은 신뢰와 힘을 불어넣기를 바라고 있다. / 신화넷

외교부 : 중남미 국가들과 단결·협력 강화할 것

외교부 대변인 림검은 13일 "중국은 진심·실효·친밀·성의 리념과 정확한 의리관을 견지하고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중국-중남미 관계의 속성에 착안해 중남미 국가들과 단결·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함으로써 양측 국민의 획득감과 행복감을 부단히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 신화넷

아태 파트너들에 기회 창출 용의 있어

외교부 대변인 림검은 13일 "중국은 제 31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지도자 비공식회의를 고품질 발전과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으로 아태 파트너들에 더 많은 기회를 창출해주는 계기로 삼아 손잡고 개방포용, 혁신성장, 상호협력, 협력상생하는 아태 운명공동체를 구축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 신화넷

중국-뻬루 '일대일로' 공동건설 년례회의의 리마서



2008년 11월 15일, 행인들이 뻬루 수도 리마의 중국거리를 거닐고 있다. / 신화넷

중국-뻬루 '일대일로' 공동건설 실무협력 년례회의가 8일 뻬루 수도 리마에서 열렸다. 회의에 참석한 귀빈들은 '일대일로' 공동건설 틀 아래 양국의 새로운 협력 기회를 심도 있게 논의하고 미래 발전의 새로운 비전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회의 기간 각측은 다수의 실무 성과를 거뒀다. 신화사 국가고급싱크탱크는 <고품질 발전 공동 추진 및 아시아태평양 운명공동체 구축>

싱크탱크 보고서를 공식 발표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의 발전 성과와 중국의 행동을 전세계에 알렸다. 중국 '일대일로' 홈페이지의 에스파냐어판이 개설되고 '일대일로' 경제정보 공유 네트워크 남미지역사무소가 문을 열었다. 아울러 년례회의의 참가자들은 중국-남미 '일대일로' 공동건설 실무협력 사진전도 관람했다. / 신화넷

<남방의 각성>, 상뻬울로서 발표

11일부터 12일까지 브라질 상뻬울에서 '글로벌 남방' 미디어·싱크탱크 고위급 포럼이 열렸다. 신화사는 포럼 계기에 중국어·영어·에스파냐어·포르투갈어로 된 보고서 <남방의 각성>을 발표했다. 총 6만 5,000여자 분량의 보고서 전문은 올해 신화사가 발표한 <남방의 각성> 시리즈 조사 성과를 모

아서 수록했으며 수백년 동안 아시아인과 아프리카인들이 서방의 식민침탈과 압박에 시달리며 독립·자주를 쟁취하고 발전·진흥을 추구해온 역사적 맥락을 중심으로 '글로벌 남방'의 현대화 실현에 대한 끊임없는 추구를 설명하고 '글로벌 남방'이 집단적으로 굴기하는 시대적 대세를 반영했다. / 신화넷

신화사 싱크탱크 보고서 브라질서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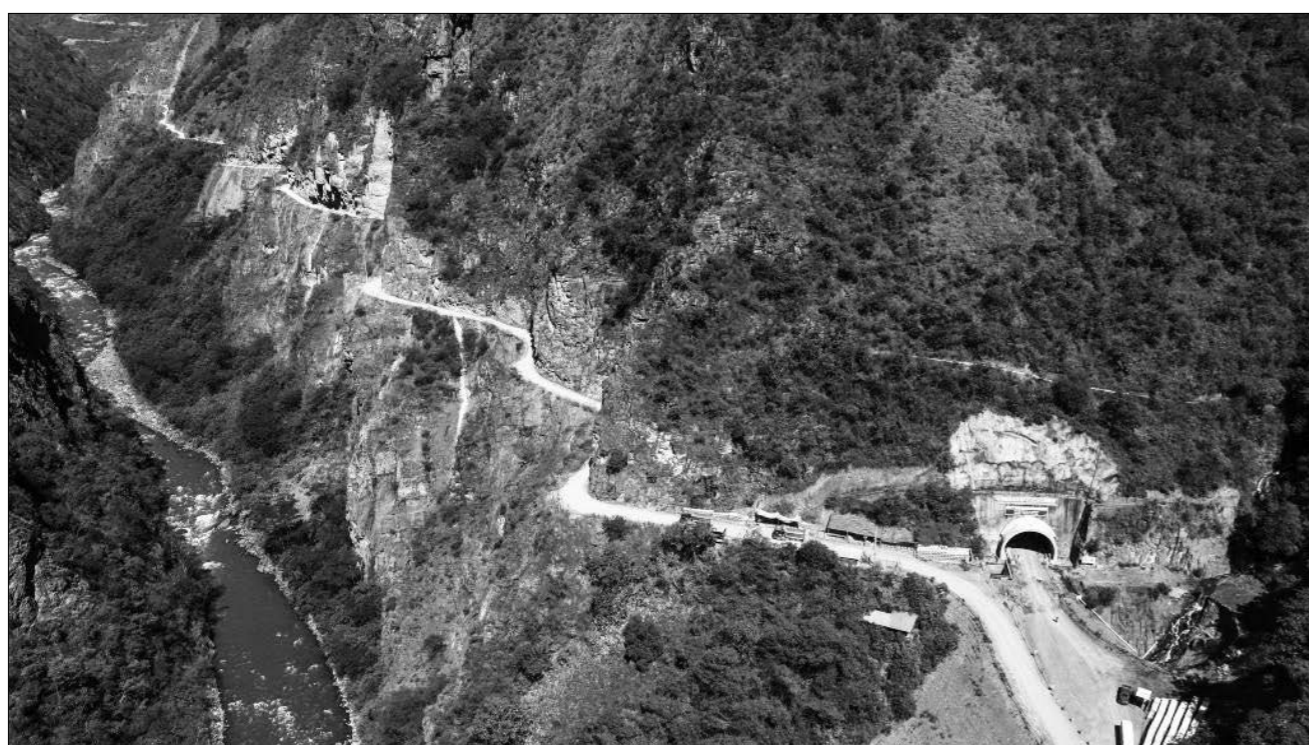
4월 19일, 공연자들이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로의 유엔 중문의 날 행사에서 한복(汉服)을 전시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 관중들은 한복, 무술과 다예 등 공연을 감상하고 중국서에, 중국음식, 중국어과정과 중의학문화를 체험하고 료해했다. / 신화넷

11일부터 12일까지 브라질 상뻬울에서 '글로벌 사우스' 미디어·싱크탱크 고위급 포럼이 열렸다. 포럼 기간에 싱크탱크 보고서 <새로운 인류문명 형태의 세계적 의의>가 발표됐다. 보고서는 중국식 현대화가 인류문명의 새로운 형태를 창조하는 데 담긴 독특한 의미와 위대한 실천, 세계적 의의를 포괄적이고 심도 있게 해석하고 설명했다. / 신화넷

싱크탱크 보고서는 중앙당사·문헌연구원 국가고급싱크탱크와 신화사 국가고급싱크탱크 공동연구팀이 작성했다. 이번 포럼은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이 지도하고 신화사와 브라질통신사가 공동 주최했으며 70여개 나라와 지역의 170개 언론사, 싱크탱크, 정부 부처 및 기업 대표 약 350명이 참석했다. / 신화넷

뻬루 국회의장 :

중국과의 각 분야 협력 진일보 추진되길



6월 23일 뻬루 쿠스코지역에서 찍은, 중국철도공정그룹 탄발국이 건설한 마추픽추도로 터널 프로젝트와 그 옆의 절벽. (드론 사진) / 신화넷

뻬루 국회의장 에두아르도 살우아나는 최근 수도 리마에서 가진 신화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뻬루는 뻬루-중국 관계를 높이 평가하며 습근평 중국 국가주석의 방문을 계기로 각 분야의 협력을 한층 더 심화하고 양국 국민

들을 위해 더 많은 복지를 창출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살우아나는 "습근평 주석의 뻬루 방문은 2016년의 국민방문에 이어 두번째"라면서 "뻬루 국민들은 습근평 주석의 방문을 무척 기대하고 있다."

고 말했다. 그러면서 "습근평 주석의 방문은 뻬루와 중국의 전통적 우의를 더욱 공고히 하고 양국간 각 분야의 협력을 심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살우아나는 뻬루는 중국이 거둔 큰 발전 성과에 탄복한다면서 중국은 이

/ 신화넷